조물주의 사랑으로도 계속 부족한 이유

(로마서 8:31~39)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조물주의 사랑으로도 계속 부족한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조물주의 사랑으로도 계속 부족한 이유”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를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하면서 로마서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반짝거리는 첨예한 끝부분이라 말합니다. 저는 그런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복음

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로마서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로마서 8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에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편의상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첨예한 끝부분에서 나오는 빛 자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탄하며 찬양하는 심정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객관적인 인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탄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본문은 그동안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을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그 모든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탄성은 교리로 배운 대로 객관적인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5~36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위험과 고통과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실감하였고 어려운 일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었기에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였던 것입니다. 35~36절을 풀어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구나. 다양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고통이나 권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에게 임한 사랑의 크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전능하신 조물주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크기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탄과 찬양을 통하여 드러나는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감탄과 찬양으로 노래하지는 못합니다. 본문은 “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삶을 통해 확증되는 그 사랑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조물주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조물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기적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조물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피조의 세계 전체보다 더 값진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면 피조의 세계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을 느끼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무엇인가를 더 받겠다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물주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부족함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뭘 얻겠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읽어온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김빠지고 맥빠지는 말씀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큼을 오버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라도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인정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부족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의 세계 전체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의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서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공격적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탄성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객관적이고 교리적으로 배운 대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과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하자면 사랑의 주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김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원되셔서 내게 주시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김빠지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내게서 좋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만나게 되는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에 대한 좋음의 맛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 대상은 건강 돈 승진일 수 있으며, 세상에서 소원하는 형통일 수 있으며, 여행이나 취미나 각종 명품이나 맛있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좋음이 실감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좋으심의 맛을 모르기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사랑의 언급에 대해서 김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자신과 돈 10억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100억을 예로 들었는데, 집사람이 100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니 더 줄여서 10억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좋음이라는 실제 느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이 느낌과 실제로 돈 10억이 주어질 때의 느낌을 비교해보면 돈 10억에 대한 느낌이 더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10억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주시고 승진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팍팍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감탄과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6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내가 맛을 모르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깨끗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이유를 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을 갖게 된다는데 정작 하나님 자신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다고 실감하는 대상들은 피조물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음의 맛을 아는 대상들을 주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좋음의 맛을 아는 피조물들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맛을 모르는 하나님만을 가지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을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얻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다가오고 있고 물 흐르듯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지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몸과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아닌 두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들을 내 몸에 두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게 주신 것이 아닌 두신 것이며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계좌에 있는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에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갖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에게 부족함을 느끼며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이미 내 것으로 주고 계시고 내 것으로 확보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의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맛있는가, 하나님 자신의 좋음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어떤 위험과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평강 속에서 삶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좋음의 맛에 눈뜰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소개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잘 어울릴 것 같은 남녀를 중매해줍니다. A라는 남자에게는 B라는 여자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기에 소개를 합니다. B라는 여자에게는 A라는 남자가 정말 괜찮다고 소개를 합니다. 소개해주는 사람이 덕망이 있으면 “이분이 소개하는 걸 보니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보다. 믿어봐야겠다.”라고 여기면서 만나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에 대해 좋음의 맛이 실제로 느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소개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고 서로의 좋음에 대한 믿음만이 존재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음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음의 맛을 알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A와 B가 서로 좋음의 맛에 눈을 떠야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은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으니 아버지를 가진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으니 머리 둘 곳 없이 평생을 사셨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곧장 이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둔 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으로부터 그 정도로 아버지가 좋은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느끼시는 만큼 아버지의 좋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아버지의 좋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그저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버지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빛이 나오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았기에 아버지의 빛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빛을 본 베드로는 산 아래에서 바라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피조물의 세계에서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휴지처럼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좋으심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된 아버지의 좋음을 객관적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정은 아버지의 좋음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좋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개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둘이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아버지와 단둘이서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C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청년이 B와의 소개팅에 나가봤자 B의 좋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은 내 마음에 좋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외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부활하신 자리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 연쇄과정 안에 머물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으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 안에서만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남녀가 만남을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의 좋음을 발견하고 정이 들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좋음의 맛을 알게 되고 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받았음을 깨닫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탄성으로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좋음에 눈떠야만 합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여도 시큰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1억을 주신다면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두근두근할 것입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하면 드디어 때가 왔다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좋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으로 들어가면 피조 세계의 좋음의 맛은 끊어지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는 중에 사과를 먹으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느낄 때는 더는 피조 세계의 맛은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맛이 제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개팅을 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잔뜩 광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단독 대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위험이나 각종 환난과 고통이 주어질 때마다 싫어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싫어함은 좋아함의 반대이지만 성격은 동일합니다. 없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싫어하기에 앞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연쇄과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좋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좋음의 맛을 느끼자 육체로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환난이나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중에는 하나님의 좋음과 사랑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강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흔들림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당당하고 바위같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 좋음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지구를 이깁니다. 지구를 지으신 조물주의 맛을 느끼며 조물주를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좋으심에 눈떠야만 하고 세상의 좋음에 눈뜨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독 대면하는 시간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연쇄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음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연쇄과정 안에서 의식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단독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좋음의 느낌을 더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